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신기술 교류의 장 펼쳐진다

한전, 11월 1~3일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개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에너지 4.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에너지박람회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17'(BIXPO 2017·Bitgaram International Exposition of Electric Technology)를 개최한다.

BIXPO는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기술 교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개최됐다.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밸리 구축을 위한 사업의 하나다.

지난 두 차례 개최를 거치며 전시규모와 참가업체, 수출상담 실적 등이 대폭 늘어나는 등 에너지분야 대표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글로벌 신기술 교류뿐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역

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Connect Ideas, Meet the 4th Revolution'을 슬로건으로 세계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에너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기술의 트렌드와 융합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전시 면적이 지난해보다 30% 늘었고, 참가하는 기업도 250개 이상으로 약 40% 증가한 상태다. 여기에 관람객은 6만명 이상으로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규모 면에서 대폭 성장한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IXPO 2017'은 크게 신기술 전시회와 국제발명대전, 국제 컨퍼런스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더해져 체험, 강연 및 토론 등을 통해 업계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트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면적 30% 늘고 참여업체 250개 이상
AI 활용 전력 점검 'Energy 4.0관' 등 신설
발명대전 시상 넓히고 참가분야 대폭 확대

신기술 전시회는 지난해까지 에너지 신사업, 신기후, Inno-Tech Show, 중소기업 동반성장 박람회 등 4가지 테마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Energy 4.0관, 스마트시티&Start Up관, 발전신기술관 등 3개 전시관을 신설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박람회로 기획했다.

Energy 4.0관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전력계통 운영, 로봇 드론을 활용한 전력 설비점검 등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스마트시티&Start Up관에는 100개에 이르는 주요 해외 스마트시티 구축 업체와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스타트업이 참가한다.

발전신기술관은 발전 5사, 한수원 등 발전 전력 그룹사와 CO2 저감기술, 청정 발전 등 발전 분야 우수 기업이 참여해 청정 발전 등 신기술을 선보인다.

이번에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리는 발명대전은 국제발명대전, 한전발명대전, 일반&대학생전, 발명테마관 등으로 꾸며진다. 국내·외 참가자, 대학생 및 BIX-PO 참가기업의 출품도 가능해지면서 아이디어 경쟁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분야 역시 전력, 에너지, ICT와 친환경 분야에서 생활과학분야가 추가됐다. 한전발명특대전과 국제발명대전으로 나눠 시상한 반면, 올해는 폐막식 때 'BIX-

PO AWARDS'라는 별도의 통합 시상행사를 진행해 그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또 대학생 수상자의 경우 한국전력 신입사원 공채지원사 서류전형에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이달 22일까지 BIXPO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미래의 전력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에너지 기술 분야가 더해져 총 30개의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세계적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가이자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돈 탭스콧(Don Tapscott)이 특강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0개국 50개 글로벌 전력사 CEO와 CTO 70명이 참여해 통합 에너지 네트워크(IEN·Integrated Energy Network) 등을 주제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는 CTO 포럼이 있다.

여기에 영국 런던과 미국 피츠버그 등 16개 스마트시티 관계자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각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와 현황을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리더스 서밋'(Smart City Global Leaders Summit)이 열린다.

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EPRI TI Summit'(미국전력연구원 기술혁신 고위급회의)를 유치했다. 기존 행사에 비해 전시테마가 다양해지고 발명대전 경쟁부문 신설을 넘어 질적인 면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전은 BIXPO 2017이 전문가들만의 잔치가 아닌,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 등을 펼칠 계획이다.

다양한 신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발명교실을 운영한다. 행사기간에는 광주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야외 공연장에서는 사물놀이, 클래식, 재즈, 국악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T, 中 상해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국내 외식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7 상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했다. <aT 제공>



한국전력 조환익(왼쪽)사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이 지난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공조 업무협약

한국전력(사장 조환익)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대비 사이버보안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과 KISA는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기술 교류를 통한 4차 산업 활성화와 도모 ▲빛가람 에너지밸리 정보보호 역량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위협정보 공유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및 상호협조 ▲국내외 사이버보안 인재육성 교육 상호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적용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

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에 맞춰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한 에너지밸리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환익 사장은 "방대한 전력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한 한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기술력을 가진 KISA와 협업하면 한전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신사업 견인을 위한 정보보안기술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에너지밸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에너지분야 보안기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문화콘텐츠 전략적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콘진원 '문화산업 정책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2017

년 전국문화산업 정책워크숍'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비롯해 춘천시, 공주시, 합천군 등 전국 2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콘텐츠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평창올림픽 조직위

원회 윤강로 보좌관의 '올림픽을 향한 준비'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문화산업육성정책 발표 ▲정책발굴 토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견학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콘진은 이번 행사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동계 스포츠 체험부스 ▲초대형 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평창 올림픽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동계 스포츠 체험부스에서는 봅슬레이, 스키점프, 휠체어 컬링 등 동계올림픽 종목과 동계패럴림픽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자에게는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네임택, 타투 스티커 등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함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군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T. 062-714-2251